

주 석 님 은 오 늘 도 통 일 에 로 부 르 신 다

통일에 대한 갈망이 숭고한 사명감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날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그 날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전에는 그저 멀리 이역에서 지켜보며 꿈속에서만 그려보고 바라던 내 조국의 통일, 허나 그것이 거레모두가 실장을 바쳐 이루어야 할 최대의 민족사적과제임을 어버이주석님께서 7월의 그 숭고한 뜻으로 깊이 새겨주셨다.

나는 지금도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어버이주석님의 통일친필비가 빛나는 력사의 땅 관문점을 찾곤 한다. 그러면 친필비에 새겨진 주석님의 고귀한 뜻이 사무치게 어려오고 그이께서 오늘도 우리 모국을 통일으로 부르는듯싶다.

나는 언제인가 도이쉴란드의 한 력사학자로부터 이런 교백을 들은적이 있다.

《지구촌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인타다가 총명하고 소름끼치, 아마 통일만 되면 조선민족은 세계 으뜸가는 민족으로 솟아 오를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보니 민족적자긍심과 함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솟구쳐올랐다. 진정으로 온 거레가 일일천추로 바라마지 않는 통일, 민족의 부흥과 행복과 잇닿아있는 통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것인가.

나는 머리를 들어 멀리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곤 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분렬의 한이 서린 관문점이 떠오르고 그곳에 세워진 위대한 주석님의 통일친필비가 우뚝이 안겨온다.

갈라진 땅, 헤어져사는 민족의 아픔과 몸부림이 멎처럼 어렘쳐져 있는 관문점.

주석님의 통일친필비가 왜 관문점에 세워졌는지 그 의미는 새겨 볼수록 가슴을 뜨겁게 한다.

지나해 7월에 조국을 방문하여 관문점을 찾았을 때 동행한 일군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어느 한순간도 남남동포들을 잊고사신적 없으신 주석님께서는 민족분렬의 아픔이 서린 개성땅을 여러 차례 밟으셨다고 한다.

1960년 9월 어느날 개성시 관문군 봉동농협동조합(당시)을 찾으셨던 주석님께서는 남쪽땅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분개선이 어디쯤 되는가고 물으시고는 오레도꼭 남쪽을 주시하시였다. 손을 뻗치면 닿을듯, 소리치면 화답할듯 시야에 점점이 안겨오는 산가운데 높이 솟은 삼각산. 그 너머에 서울이 있었다. 마을앞으로 뻗은 철길을 따라 기차로 가

조국통일 3대헌장은 불멸의 통일대강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여기에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방도들과 함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운동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고귀하고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어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불멸의 자주통일대강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렬이라는 쓰라린 비극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근 70년이 되어온다. 인간의 한성과도 맞먹을수 있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의연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에 부닥치고있다.

오늘날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3대헌장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불멸의 자주통일대강이다.

지금으로부터 42년전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자주의 원칙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민족통일운동의 출발점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의 분렬은 전적으로 외세가 강요한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에국의 한길로 이끄시는 조국통일의 구상이지였다.

그때 나는 해방의 첫기슭에서부터 장장 수십년간 오로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로심초사하여오신 주석님의 한생이 어려와 눈곱이 찻어들었다.

한평생 나라의 통일을 위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주석님 만나주신 남녘과 해외의 동포들은 그 얼마이고 집필하신 불후의 통일명저들은 그 얼마인가. 그 길에서 갈길 몰라 방황하던 민족주석원들이 통일에국의 대오에 과감히 뛰어들었고 민족 대단합의 도도한 대하로 굽이쳐 흘렀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지구의 한 끝에서 사는 우리 제도이쉴란드 동포들도 친히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석님께서 여기 도이쉴란드에서 살던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윤이상선생을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통일에국지사로 값있는 내세워주신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어느해였든지 베를린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던도중 윤이상 선생을 만난적이 있었다. 그때 내손을 다정히 잡고서 그가 하는 말이 다들 남보고 세계적으로 진해되도록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신분은 어버이주석님이시였다. 범민족대회 해외추진본부 사무총장이였던 림민식선생이 분렬의 상징인 관문점이 통일열기로 그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던적은 일찌기 없었을것이라며 눈시울을 적시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대회가 끝난 후 해외동포대표들은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게 되었다. 그때 주석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대표들은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가 맥박치는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민족분렬의 비극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실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어버이주석님의 한없이 숭고한 애국애족의 세계에 대해 페부로 절감하게 되었다.

애국애족이란 말은 범상한것 같아도 거기에는 피가 뛰고 뜨거운 진정이 고인다. 분단민족으로 사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통일에 사는것만큼, 통일을 위해 바치는것만큼 더 큰 겨레사랑, 조국사랑은 없다고 본다.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열렬한 민족애의 최고화신이고 온 겨레를 민족족대단합으로 묶어세워

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오레전에 련방제에 의한 조국통일방안을 내놓았다. 련방제조국통일방안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것이다. 만일 우리가 남조선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한다면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실현할수 없을뿐아니라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지게 될것이다. ...

두 나라 통일문제의 성격을 명철히 대비분석하시며 우리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진로를 환하게, 알기 쉽게 깨우쳐주시는 주석님의 금언은 우리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밝은 확신과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주석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분렬로선은 통일로선을 이길수 없다.

돌이켜보면 북은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그러나 이남의 《정권》은 력대로 분렬로선을 추구해왔다.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지향에 도전하여 《단선단정》을 조작하고 분렬을 고정화한것도, 분단선 전구간에 걸쳐 대결과 분렬의 콩크리트장벽을 쌓은것도, 두개 조선합법화를 노린 유엔단독가입음율을 벌린것도 다 남쪽의 《정권》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자주적평화통일로선이 분렬로선을 이기게 되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가 아니겠는가.

조선 반도의 통일 은 어버이주석님께서 일찌기 제시하신대로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에 기초하여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조율하여 단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은 우리 동포들의 굳은 확신이다.

어제는 물론 오늘과 래일에도 온 겨레가 쌍수들이 지지하고 남득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의 원칙과 통일방안, 오랜 세월 한강 도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이라는 큰 지붕아래 함께 모여살수 있는 합력적인 길을 밝힌것은 민족애의 최고화신인 주석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불멸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버이주석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돐을 맞으며 지금 겨레의 마음은 관문점으로, 통일친필비으로 향하고있다.

《 김 일 성 1994. 7. 7. 》

아홉글자의 그 눈부신 글발에서 빛발쳐오는 주석님의 애국애족의

조국통일사상과 불멸의 령도,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주석님의 한평생이 응축된 불멸의 친필, 그 글발들에 높뛰는 숭고한 뜻을 새길수록 력사적인 통일문건에 수표하신 후 창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국통일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소 라고 하시던 주석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오늘날도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문건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시여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한 과업, 최고의 애국이 무엇인가를 빼에 사무치게 새겨주신 어버이주석님.

그때부터 나만이 아닌 우리 겨레모두의 가슴속에 조국통일은 어버이주석님의 념원을 꽃피우는 가장 숭고한 위업으로 더 굳게 새겨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름의 상징인 관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려는 념원에서 해마다 해내외의 수많은 통일운동자들이 모여 통일행사를 벌리는 이곳 관문점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수령님의 통일친필비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민족분렬의 원한이 제일 질게 서려있는 관문점, 어버이주석님께서 남남동포들을 생각하시며 조국통일외의지로 온넛을 뜨겁게 불태우시던 관문점.

하기에 관문점에 세워진 불멸의 통일친필비를 우러르며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갈 때면 어버이주석님께서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어서 오라 부르시는것만 같아 걱정을 여체할수 없네. 오늘날도 주석님께서 이곳에서 멀리 남녘의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겨레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것만 같은 심정이다.

참다운 영생은 여태날의 추억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오늘과 래일에 줄기차게 이어지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에 있다고 했다.

위대한 인간이 지녔던 사상과 뜻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이어지고 후세들의 투쟁과 생활속에 남아 참된 진리를 새겨주고있는데 우리 어찌 통일의 새아침을 마중해가는 오늘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어버이주석님의 거룩한 생애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있으랴.

그렇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위대한 사상으로 민족의 앞길을 밝히고 뜨거운 정과 열로 온 겨레를 품어주시며 오늘날도 통일에국의 한길로 겨레를 부르신다.

그 숭고한 애국애족의 부름을 심장깊이 새기시고 위대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 은 온 겨레의 마음속에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영생 하고계신다.

재로동모 리동철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김일성주석회고모임에서 《김일성주석님을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행운중의 가장 큰 행운이였다. 어버이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오늘 만민이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강위력한 사회주의요새

《민족의 영원한 태양》

로 전변되었다.》고 하면서 《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였다.

재 중 동 모 최 청 산 은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민족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우리 민족은 재생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계에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겼다.

국 제 고 통 련 불 레 전 《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은 한가정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모두의 만복을 위해 나라의 새벽문도 제일 먼저 여시고 저녁문도 제일 늦게 닫으시며 한평생 현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고 지적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주영일회장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교배한 인민적품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동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쳐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